

대학은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 성 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이 한 가지가 우리나라 대학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대학은 그 설립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설립 목적이란 어떤 목표로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내가 아는 미국의 한 기독교 장로교 교단의 대학들을 예로 들어보겠다. Reformed Christian Calvinism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작지만 아주 튼튼하다. 150여 년 전 화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단이다. 이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들은 약 10여 개이다. 그 중 하나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있는 웨스턴신학교(Western Theological Seminary)이다. 한 학년이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신학교이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러나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Norman Vincent Peal 목사와 Robert Schuler 목사를 아는지 물으면 대부분 안다고 대답한다. 웨스턴신학교는 신학자를 길러 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그 대학 출신 가운데 신학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옆에 Hope College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웨스턴신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을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물론 이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모두 웨스턴신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 교육도 평

장한 음악가를 길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교회음악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끌 음악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고 전혀 훌륭한 성악가가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향후 진심으로 신학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칼빈대학(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 가면 된다. 교회에서 목사와 신학자만 필요로 하

대학은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시작했으면 지금이라도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적에 맞는 학생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학과와 학부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

는 것은 아니다. 칼빈대학에서 10분 거리에 Reformed Bible College가 있다. 이 대학은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준의 사람들을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삼류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삼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자를 길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길러내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Northwestern College는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다. 그 외의 대학들도 모두 각각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설립된 학교들이다. 다만 내가 직접 방문해 본 학교들

만 소개했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1년에 입학했는데 우리 학과 학생 수는 40명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농촌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농업경제학과를 선택했다. 그리고 거창에 돌아와 직접 농사를 지으며 학교 교사가 되려고 생각하고 농업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깜작 놀란 것은 대부분의 입학 동기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수님들도 농업경제학에는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농촌과 농민의 아픔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그 중 두 친구만이 농민의 아픔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경제학과 대신에 농업경제학과를 택한 것으로 보였다.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 외에는 모두 농촌이나 농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살아왔다. 나는 한번도 농업경제학과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와 학생선발 방식은 반교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업경제학과는 조금 성적이 떨어져도 농업경제학을 공부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농업의 발전을 기하고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을 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뽑아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이 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학과가 되었어야 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성적이 나뉘더라도 교사가 될 사람들을, 지리학과는 지리학을 공부하여 그 학문을 가지고 자신과 이 사회를 위

하여 일하며 살아갈 사람을 뽑았어야 했다. 서울대학교는 양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예로 든 이유는 내가 나온 대학인 동시에 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대학들은 설립 목적에 따라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또 기독교 관련 대학들이나 신학교들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본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만 예로 든 것이다.

대학은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시작했으면 지금이라도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적에 맞는 학생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학과와 학부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했다 하면 어떠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로 갖춘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뭐라고 해도 대학은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재능과 소질 그리고 관심이 다 다르다. 그리고 같은 재능이라도 그 수준이 다르다. 또 그 재능의 쓰임새도 가지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각기 다른 재능에 대하여 그 수준 별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각기 다른 쓰임새로 쓰일 수 있도록 길러내 주어야 한다. 모든 사회는 일류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각양각색의 그리고 각기 다른 수준의 재능과 소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각각 자기가 가진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자기 수준에 맞게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권

리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은 분명해야 한다.

대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소위 일류만을 길러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일류만을 길러낸다는 말로 오해하면 학벌의 병폐가 망국적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대학은 그 설립 목적에 맞는 학생을 뽑아서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시키고 설립 목적에 도달하면 졸업시켜야 한다. 이 한 가지가 우리나라 대학이 제일 먼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국가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먼저 겨냥하면 또 본질을 놓치게 되고, 본질을 놓치면 국가경쟁력도 잃고 대학교육도 망치게 된다. 본과 말이 뒤바뀌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육**

전성은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교육행정학 전공)학위를 취득하였고, 영국 Selly Oak College에서 social development 과정을 수료하였다. 거창고등학교에서 오랜 교편생활을 하였고, 경남 거창 YMCA 이사장, 전국 YMCA 연맹 이사, 경남 산청 간디 학교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사도바울의 편지』, 『이땅의 젊은이들에게(공저)』 등이 있다.